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7월 27일(일) 제1550호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 외치던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7월 28일(월)~8월 1일(금)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
8월 1일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소천 14주기 추모예배’

온누리교회가 하용조 목사 소천 14주기를 맞아 7월 28일(월)부터 8월 1일(금)까지를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그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다. 추모 기간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새벽기도회에서 하용조 목사의 생전 설교 영상을 상영한다.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 새벽기도회 설교 주제와 본문은 7월 28일(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까닭은’(요 15:16~25), 29일(화) ‘성령님과 고난’(요 15:26~16:4), 30일(수)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다’(요 16:5~11), 31일(목) ‘진리의 성령’(요 16:12~15), 8월 1일(금) ‘빼앗을 수 없는 기쁨’(요 16:16~32)이다.

새벽기도회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오전 5시 30분 본당, 양재온누리교회 오전 5시 30분 사랑홀, 부천, 대전, 남양주, 평택, 인천 오전 5시 30분 본당, 수원 오전 5시 30분 ICT C동 1층 예배실, 세종 오전 5시 30분 세종교육관 408호, 양지 오전 5시 30분 시안홀, 영종, 제주 오전 6시 본당, 강동 오전 6시 20분 본당에서 진행된다.



하용조 목사 소천 14주기 추모예배는 8월 1일(금) 오전 11시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기념채플에서 드린다. 유가족과 교회 리더십 중심으로 소규모 예배를 드린다. 박종길 목사가 사회를 보고, 홍성호 장로 대표기도, 블러썸채버 특순,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가족대표 하

성석 원장 인사, 강부호 목사 축도 등의 순으로 예배를 드린다.

故 하용조 목사는 2011년 8월 2일 향년 65세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1976년 한국 최초 연예인교회 개척, 1980년 두란노서원 창립, 1985년 온누리교회 창립, 2005년 CGNTV 설립,

2007년 첫 러브소나타 개최, 2010년 NGO 더멋진세상을 창립했다. 저서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등 90여 권이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와 함께, 온 누리를 행복하게!

여름 아웃리치 국내외 318개 팀 6,368명 참가
8월 31일까지 동영상 공모전 및 간증문 모집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한창이다. 국내외 318개 팀 6,368명이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7월 22일 기준). 국내 아웃리치에는 성인공동체 34개 팀 1,054명, 대학청년부 136개 팀 2,898명, 차세대 23개 팀 388명이 참가한다. 춘천, 남양주, 제주, 태안 등지에서 군 장병 초청 잔치, 마을 및 노방 전도, 어린이 사역, 어르신 섬김, 마을 미화 작업 등을 한다.

해외 아웃리치에는 성인공동체 35개 팀 572명, 대학청년부 63개 팀 955명, 차세대 27개 팀 501명이 참가한다. 미얀마, 일본, 스리랑카, 뉴질랜드 등지에서 선교사 위로와 교제, 교회 보수, 어린이 캠프, 마을 전도 등을 한다.

이번 주(7월 27일~8월 2일) 아웃리치를 떠나는 공동체는 성북공동체, 양재B공동체, 과천의왕공동체, 인천 온유공동체, 인천 충성공동체, 인천 대학청년부 등이다.

군 부대 아웃리치를 다녀 온 오효수 다락방장(남양주 C공동체 별내다락방)은 “수많은 장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소

망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관련 기사 5면).

여름 아웃리치의 은혜와 감동도 나눈다. 미디어본부에서는 8월 31일(일)까지 ‘2025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여름 아웃리치 영상(릴스, 숏츠 등)을 60~90초 분량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영상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5) 하거나 온누리교회 공식 인스타그램(@onnuri.acts29)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도 응모할 수 있다. 1등 50만 원(2팀), 2등 30만 원(3팀), 3등 10만 원(5팀), 풍요요상 10만 원, 등등상 5만 원(5팀)을 준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아웃리치 사진과 간증을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까지 간증(한글 파일 기준 글자 10포인트로 A4용지 1장)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 홍하영 기자

차세대, 하나님 안에서 여름나기!

10일까지 ‘여름 캠프’, 16일까지 ‘QT하고 빙수먹자’

차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여름을 나고 있다. 8월 10일까지 차세대 여름 캠프가 진행된다.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은 ‘하나님의 꿈을 입은 요셉’, 파워웨이브(중고등부)는 ‘His Plan’을 주제로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및 외부에서 캠프를 한다.

차세대들이 방학 동안 QT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돕는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QT하고 빙수먹자’는 8월 16일(토)까지 이어진다.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 좋아요>, <새벽나라> 등 차세대 QT 교재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활용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 QT’ 4편을 포함해서 총 24편 QT한다. 참여 일수에 따라 빙수를 선물로 보내준다. 문의: 02-3215-3521

/ 홍하영 기자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 ‘1:1 결연 복음릴레이 캠페인’

CGN이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 ‘1:1 결연 복음 릴레이 캠페인’을 한다. 영화관을 찾기 힘든 미자립교회 성도들과 해외 선교사, 한인 이주민 성도들이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을 관람하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후원금 1만 원을 후원하면 1명의 선교사 혹은 성도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후원금을

입금할 때는 입금자명과 생년월일을 꼭 기입해야 한다(예: 온누리 910128). 더 자세한 내용은 CGN 홈페이지(cgnkore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96-2243

후원계좌: 하나은행
228-910021-96104(재)온누리선교재단)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정복하는 여정에 두 가지 성격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물로 주시는 땅인 동시에 그 백성들이 밭로 밟아야 하는 땅, 곧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기만 해도 주시는 선물이 넘쳐나는데, 그 선물을 스스로 거부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승리의 법칙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순종의 책임과 인격적인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것이고,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공의로운,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육신의 혈통을 따라 그 땅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포함된 아들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범죄를 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가나안 민족들이 받았던 진노와 심판을 동일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는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행하는 담대함, 백성들의 수많은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질서에 먼저 순종하는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기쁘게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소명의 특징

〈여호수아〉 1장 10~1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실행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때로 지연은 그 자체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머뭇거리기가 없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또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광야시대에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들어갈 땅에서는 스스로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32장에 이미 기록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을 먼저 정복할 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지파는 가족이 많았습니다. 가족 때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수 없기에 모세에게 “우리 지파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대신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들은 여기에 있지만,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해서 모세가 허락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지파들에게 “약속을 이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6~18절).

그들에게 인상적인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 기쁘게 순종합니다. 어떤 조건, 한계를 제시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전폭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헌신의 서약을 합니다. 자신들의 권익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했던 말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 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모세에게 했던 일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 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고백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둘째,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도 들었고, 백성들에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회중들을 통해서도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백성들의 부르심이 연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과 회중으로부터의 부르심이 하나 되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귀한 출발이 되었습니다.

안식과 의미 그리고 누림

13절과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안식’이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전쟁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을 주는 전쟁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여기서 안식은 지리적 안식과 물리적인 안식을 의미합니다. 더는 광야를 방황하지 않고, 적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에서 안식은 첫 번째, 이제 그들과 맞설 수 없고, 원수들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물리적인 안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깊은 의미입니다. 물리적인 위협이 없지만 그 자체가 안식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임재 가운데 누리는 평안의 안식입니다. 두 번째 의미의 안식을 〈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입니까?”(히 3:18).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히 4:3).

이는 하나님이 “내가 진노해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히 3:11). 세상이 창조된 이래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갔지만, 불신한 이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안식을 설명할 때 ‘사바트’라는 단어로 번역된 ‘사바티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시간적인 구별의 안식입니다. 제7일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비하며 누리는 안식입니다. 멈춤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을 떼어 구별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함으로써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장소적 의미의 안식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어 ‘매누하’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 시간 중심과 공간 중심으로 나누어서 안식을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식을 얻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간적인 의미의 안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안식, 장차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세 종류의 안식을 연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완성으로서의 안식입니다(히 4:4~5). 하나님의 창조가 제7일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도 하나님 창조의 일부이며,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안식을 인간과 더불어 모든 만물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

아 안식을 인간이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얻는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써 얻는 안식입니다(히 4:8~9).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진정한 안식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을 얻는 전쟁이었지만, 진정한 안식을 보여주는 모형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남아있는 진정한 안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면 됩니다(히 4:2). 그 믿음은 순종을 의미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는 말씀에서 ‘형통’이 안식이라는 맥락의 의미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얽매는 죄악의 사슬과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장차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 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 안식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담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안식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안식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크리스천의 자녀 양육

대물림의 사슬 끊어내기



장보원 성도
(일산파주공동체,
어린이 일대일제자양
육교육팀장, <소리로
흐르는 육아> 저자)

“나는 절대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수많은 부모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쳤을 이 다짐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정말 쉽게 깨뜨리는 약속 중 하나이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고된 여정에서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내 부모의 모습과 불쑥 마주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곤 한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의 방법을, 그들의 상처를, 그들의 언어를 되풀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사람은 어린 시절 ‘원가족’이라는 세상의 첫 무대에서 관계의 틀을 배우고, 이 경험은 훗날 ‘자녀 양육’이라는 집을 짓는 무의식적인 청사진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뇌 과학과 후성유전학(DNA 염기서열의 변화 없이도 유전자 발현이 변화되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은 이 관계 원리가 우리 몸에 어떻게 새겨지는지를 놀라운 만큼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 방식과 스트레스는 자녀의 뇌(편도체, 거울 뉴런)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DNA 염기서열의 변화 없이도 유전자 발현을 바꾸는 ‘에피제네틱 마커’를 통해 다음세대로 전달된다. 마크 윌린의 연구는 더욱 충격적이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도 전, 외할머니의 몸 안에서 어머니와 우리의 생물학적 흔적이 한 환경을 공유하며 3대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푸른 눈동자나 곱슬머리만이 아니다. 우리는 부모의 해결되지 않은 슬픔, 내면에 감춰진 두려움, 표현되지 못한 분노까지 상속받는 영적, 정서적 상속자들인 셈이다.

상처가 만들어 낸 양육의 세 가지 얼굴

부모에게 받은 이 보이지 않는 유산은 크게 세 가지 양육 패턴으로 나타난다.

첫째, ‘과잉 보상’의 얼굴이다.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채워주려는 애절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학업 성취에 한이 맺힌 부모는 자녀를 성공 가도에 올리려 애쓰고, 가난의 서러움을 겪은 부모는 물질적 풍요를 채워주려 허덕인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녀의 고유한 부르심과 은사를 보기보다 내 결핍을 투영하는 이상숭배가 될 수 있다.

둘째, ‘반작용’의 얼굴이다. 부모님의 방식이 끔찍했기에 정반대로 행동하려는 의식적인 몸부림이다. 숨 막히는 통제 속에서 자란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고, 감정 표현이 억압된 집에서 자란 부모는 자녀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려 애쓴다. 그러나 한쪽 극단에 대한 거부는 우리를 또 다른 극단으로 이끌 뿐 진정한 균형과 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셋째, ‘무의식적 반복’의 얼굴이다. 가장 슬프고 무서운 얼굴이다.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 뇌는 가장 익숙하고 자동적인 회로를 따라 움직인다. 그토록 진절머리 찼던 부모의 날카로운 말투, 냉담한 눈빛, 비난의 손가락질을 나도 모르게 내 아이에게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상처의 자동적인 대물림이다.

자녀에게 흐르는 감정의 대물림

이 세 가지 얼굴 앞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당신의 가정에는 어떤 모습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당신의 입에서 아버지의 냉정한 질책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의 눈빛에 어머니의 불안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그 모든 것을 피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오히려 아이를 더 깊은 혼란으로 밀어 넣고 있지는 않은가?

트라우마와 반복되는 고통의 패턴 뒤에 숨은 진실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3세대에 걸친 가족의 역사를 정직하게 탐색해야 한다. 이것

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함이 아니다. 내 안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상처의 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직시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다르게 행동하려 부단히 애쓰지 않는 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는 가장 익숙한 반응 패턴을 자동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심리학적 분석을 넘어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영적 현실의 무게를 보여준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엢 6:4).

이 말씀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 부모의 미해결된 감정을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투사해 지속적인 정서적 상처나 좌절을 주는 양육 방식을 경계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대물림되는 고통의 현실을 꿰뚫는 뼈아픈 속담이 있다. 예언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 말을 기록하며 그들이 경험하던 고통의 실체를 드러낸다.

“그때에 사람들이 더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 그 자식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렘 31:29).

이 속담은 대물림의 비극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려낸다. ‘아버지가 먹은 신 포도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말은 윗세대의 잘못된 선택과 해결되지 않은 상처(신 포도)가 다음세대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이유 모를 고통과 시련(이가 시린 고통)을 겪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운명이나 저주에 대한 체념이 아니다. 죄와 상처가 얼마나 집요하게 가정을 파고들어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삶까지 병들게 하는지에 대한 너무나도 아픈 현실 고발이다.

우리는 대물림의 사슬을 끊어낼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은 세대다. 그러나 그 어떤 해결책도 ‘나의 이가 왜 신지’ 그 이유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 없이는 시작될 수 없다. 먼저 멈추어 서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신 포도’의 실체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글:그림 명난희

91. 기록하고 기억해요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7월 23~24일 본문 <겔 4:4~8, 5:1~12>

1.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몸을 어느 쪽으로 누웠고, 누워 있는 날의 수는 며칠이었나요?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세요.

- ① 오른쪽-40일 ② 왼쪽-120일 ③ 오른쪽-390일 ④ 왼쪽-390일

2. 에스겔이 유다 족속의 죄를 감당한 기간은 며칠인가요?

- ① 70일 ② 40일 ③ 390일 ④ 400일

3.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와 수염을 깎고 그 털을 삼등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 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에 태워라
② 3분의 1은 성읍 주위를 돌아가며 칼로 쳐라
③ 3분의 1은 햇볕에 말려 두어라
④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 보내라

* 정답과 함께 ‘이름, 공동체, 연락처’를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차세대 우선 선정).

* 1544호 정답자: 이희찬 학생(부천), 조예준 학생(대전), 남동명 학생(인천)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온누리교회 꿈이자라는땅 11살 김기명입니다. 저는 엄마와 작년부터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안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코람데오 홈스쿨을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이 홈스쿨 과정인 줄 알고 했습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모습만 사람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지 기도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픈 아이를 고쳐

주실 때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아! 떠나갈지 어다!”라고 하셨을 때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활동하는 시간에 십자가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가족들과 이케아에 갔다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의 아빠와 저희 아빠가 회사 동료였습니다. 친구와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생겨서 전도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었는데, 그 날은 너무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른 자세로 예배하며,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김기명 학생
(서산온누리교회,
초등5학년)

글로벌 보건의료 플랫폼 NGO '메디엑세스' 첫 아웃리치

“우리는 그들과, 그들은 우리와 사랑에 빠졌다”

말라위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미소 그리고 헌신

온누리교회 글로벌 보건의료 플랫폼 NGO '메디엑세스(MediAccess, 이하 메디엑세스)'가 아프리카 말라위로 첫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시온팀'을 주축으로 팀원 15명이 참가했다. 메디엑세스는 말라위 대양누가병원과 협력해 환자 1,130명을 진료하고, 현지 의료인 교육을 했다. 그 현장에 동행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들.’

역설적인 말이지만, 말라위 사람들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말라위(Malawi)는 동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다. 남한보다 영토가 약 18% 크고, 인구는 약 2천2백만 명이다. 자원은 없고,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고 산다. 2024년 IMF 통계에 따르면, 1인당 GDP가 481달러밖에 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다.

솔직히 말라위에 가보기 전에는 편견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가난하기에 그들의 삶은 힘들 것이고, 사람들은 불행할 거로 생각했었다. 그 편견은 아웃리치 첫날 산산 조각났다. 그들이 보여준 미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선물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다. 그 미소와 함께 우리는 그들과, 그들은 우리와 사랑에 빠졌다.

끊어지는 않는 사랑의 세 겹줄, 메디엑세스, 현지 병원, 선교사 연합

가는 길부터 쉽지 않았다. 인천 공항에서 출발해 에티오피아를 경유하고, 콩고를 거쳐 말라위에 도착하기까지 22시간이나 소요됐다. 긴 시간 비행에 지칠 법도 한데 팀원들 얼굴에서 피로를 찾을 수 없었다. 육체적인 힘들보다 아웃리치를 향한 기대감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이번 아웃리치의 특별함은 먼 곳 아프리카를 찾은 게 전부가 아니다. 기존 의료 아웃리치에서 벗어나 NGO 메디엑세스가 현지 병원, 그리고 선교사와 협력해 더욱 전문적인 의료 활동을 시도했다는 점이 가장 특별했다.

메디엑세스는 말라위 현지 대양누가병원(Daeyang Luke Hospital)과 협력해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대양누가병원에는 TIM(두란노 국제선교회)에서 파견한 제니퍼 전 선교사(치과 의사)가 1년 반 동안 사역하고 있다.

대양누가병원 설립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 2008년 3월, 말라위의 수도 릴롱게에 현대식 종합병원 ‘대양누가병원’이 문을 열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서울영동교회 정유근 장로의 헌신이었다. 해운회사 ‘대양상선’을 경영하던 정유근 장로가 우연한 기회에 말라위의 딱한 사정을 접하고 사재를 아낌



▲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말라위 음세체 주민들(왼쪽). ▲ 진료 중인 엄마와 아이(오른쪽 위). ▲ 마그네스 주마 할아버지를 수술 중인 이백권 집사(오른쪽 아래).

없이 내놓았다.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80개 병상 규모의 현대식 종합병원 대양누가병원을 설립했다. 정유근 장로는 지속적인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현지 의료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2010년 병원 터에 3년제 간호대학을 설립하고, 의과대학과 농과대학 설립 계획까지 추진하는 등 말라위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일에 헌신했다. 2014년에는 ICT 대학이 출범하며 종합대학 ‘대양대학교’로 발돋움했고, 2022년에는 경영대학을 추가로 설립했다. 대양누가병원은 현재 180병상 규모로 성장했고, 연간 환자 5만 명을 치료하는 말라위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 중 하나로 우뚝 섰다.

제니퍼 전 선교사는 대양누가병원에서 치과 의사로 근무하며 아동부와 청소년 사역, 대양대학교 학생들의 제자훈련을 도맡고 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이 매우 강했다고 한다. 그래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단기선교에 참가했다. 대학 1학년 때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첫 선교를 다녀온 이후 단기선교를 8번이나 더 다녀왔다. 항상 장기선교사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단기선교 갈 때마다 하나님께 “이곳이 제가 가야 할 곳인가요?”라고 묻곤 했다. 마침내 2017년, 그녀가 49세일 때 하나님이 전임선교사로 부르셨다. 제니퍼 전 선교사는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4년 동안 사역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제안을 받으면서 TIM에서 훈련하고 지난해 말라위로 파송됐다.

“그 이름, 잊지 않겠습니다”

메디엑세스 아웃리치팀원 모두가 힘을 합쳐 섬긴 곳은 수도 릴롱게에서 차로 40분 떨어진 음세체(Mseche) 마을이었다. 대양누가병원에서 관리하는 ‘음세체 헬스센터’에서 주민들을 진료했다. 말라위 아웃리치팀은 의사(강희선

이비인후과), 김규환(정형외과), 박용원(산부인과), 박재철(정형외과), 이백권(성형외과), 정에스터(가정의학과), 정찬의(비뇨기과), 진현주(소아청소년과)), 약사(조상은), 간호사(고찬영, 신은주), 비의료인(이용석, 장희영, 정의혁, 조동욱 목사)으로 구성되었다.

사역 첫날 아침, 한국에서 가져온 짐과 현지에서 조달한 약과 물품을 준비했다. 재촉하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팀원들 모두 이리저리 펴 수밖에 없었다. 음세체 헬스센터 밖에 이미 수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 4시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도 있었다. 접수팀이 서둘러 환자들을 맞이했다. 이름을 묻고, 혈압을 재고, 병세를 살피며 진료 카드에 적어주면 안내를 맡은 팀원이 각 진료과에 데려다줬다. 크기는 작아도 다양한 진료를 볼 수 있는 종합병원 부럽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음세체 헬스센터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진료만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까지 가려면 20km를 이동해야 한다. 보건소 가는 교통비조차 부담일 정도인데 의사를 만나고, 약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 사치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병보다 돈이 더 큰 고통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디엑세스 아웃리치팀과 대양누가병원의 협력은 환자들에게 희망 그 자체였다.

마그네스 주마(80세) 할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다. 할아버지의 왼쪽 코안에 혹이 자랐다. 어렵게 수술받아 떼어냈는데, 어쩐 일인지 혹이 더 크게 자랐다. 숨 쉬는 게 힘들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다시 수술받을 형편이 되지 못해 방치했다. 그 할아버지가 성형외과 의사 이백권 집사를 만나서 혹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다시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저를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 이름을 절대 잊



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메디엑세스 아웃리치팀은 3일 동안 환자 1,130명을 치료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마음을 다해 치료하고 섬겼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말라위 사람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를 전했다. 근처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사라는 진료 견학을 왔다가 아웃리치팀원들의 헌신을 목격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말라위 사람들을 치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헌신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 땅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세체 지역 추장단 대표 해롤드 칸야몰라도 주민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메디엑세스 아웃리치팀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고백했다.

“이 지역에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데, 그들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메디엑세스가 가능으로 바꿔주었습니다. 큰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도 방문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라위 유력 일간지 〈The Daily Times〉, 〈The Nation〉, 국영 방송사 ‘MBC’에서도 메디엑세스의 활동을 집중 보도했다. 〈The Daily Times〉와 〈The Nation〉에서는 아웃리치 현장의 생생한 상황과 환자들의 반응을 심층 보도했다. ‘MBC’ 또한 현지 주민들이 메디엑세스 아웃리치팀에게 인사를 전하는 장면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무엇보다 3일 동안 메디엑세스 아웃리치팀과 함께한 제니퍼 전 선교사는 아웃리치팀이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메디엑세스 아웃리치팀은 말라위에서 가장 소외된 이웃들을 진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15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가족을 얻어서 정말 기쁩니다.”

남양주 C공동체
군인소망교회

여름 햇빛보다 짙한 청춘을 응원하며!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군인소망교회(제2군수지원사령부 55탄약대대, 이하 소망교회)는 지난 2018년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로 다시 세워진 귀한 역사를 품고 있다. 소망교회는 1988년 지어진 교회로 크고 작은 보수를 해왔지만, 너무 낡은 탓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끊임없이 피는 곳이었다. 누수로 인한 합선이나 화재가 언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던 낡은 교회였다. 그 때문에 소망교회는 부대 내 골칫거리였고, 안전을 문제 삼아 없애려고 했다.

그때 온누리교회가 손을 내밀었다. 많은 성도님의 후원과 기도로 2018년 소망교회 재건축을 했다. 재건축한 예배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증거였다.

남양주온누리교회 C공동체가 올해 여름 아웃리치로 바로 그 소망교회를 찾았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시간인지 모른다. 모든 제약이 걷히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찬 감사 그리고 설렘이 가득했다.

‘소망교회 위문예배’는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설교로 시작됐다. 낯선 땅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삶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날 예배에서 선교사님은 전도 현장이 가진 고난



남양주 C공동체 아웃리치팀이 군인소망교회 문정용 목사 부부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과 기쁨, 기적과 은혜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셨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새삼 깨달았다.

예배 후에는 장병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했다. 장병들과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커피 쿠폰을 나눠줬는데,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한 것이 단지 음료 한 잔이 아니라 ‘당신은 소중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통로가 되었기를 간

절히 소망했다.

식사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햄버거와 닭강정, 떡볶이와 컵과일을 차렸다. 군대에서 자주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 장병들이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인지 식사를 준비하면서 더욱 풍성한 기쁨이 차올랐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행 20:35)”라는 하나님 말씀이 그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우리는 군중병으로 헌신하며 군대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병사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바쁘고 고된 군 생활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군대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다.

소망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문정용 목사님 부부께는 우리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전해드렸다. 문정용 목사님은 ‘하루라도 젊은 날에 장병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는 사명으로 군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 거룩한 소망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바란다. 부대를 거쳐 가는 수많은 장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소망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무더운 여름 햇빛보다 짙한 청춘들을 응원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70여 명의 공동체 식구들이 군부대에 들어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이 시간에도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을 응원한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오효수 다락방장
(남양주 C공동체)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지난 7월 4일(금)과 5일(토) 일본 요코하마에서 처음 열린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의 주제 말씀이었다(전 4:9).

이번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는 일본 크리스천 청년들과 한국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 뜻깊은 자리였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는 총 6개 공동체가 참여했다. 서로의 언어로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회 인도자가 선포한 말씀이 기억에 남았다.

“한국과 일본이 연합해서 예배할 때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세대인 청년들과 베테랑 세대인 기성세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는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해 기도했다. 언어와 민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이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

다음날 혼고다이 그리스도교회에서는 ‘YUME Conference’가 이어졌다. 한일연합집회 ‘The Way’에 참가한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했다. 한국과 일본 청년이 조별로 레크리에이션과 나눔도 했다. 조별로 깊이 있는 나눔을 하면서 서로의 신앙 고백을 털어놓았다. 한 일본 청년의 고백이 인상 깊었다. 그는 “함께 신앙을 나눌 동역자나 영적 멘토가



지난 7월 4일(금)과 5일(토) 진행된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

없어서 신앙적으로 큰 외로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신앙의 고립’이라고 표현하며 “고민을 털어놓고 공감받는 이 자리가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짧은 나눔이었지만, 그 청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느낄 수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한 온누리교회 청년의 나눔도 인상 깊었다. 그는 “사람이 많다 보니 순예배가 신앙공동체라기보다 동호회 활동처럼 교제 중심으로만 흐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진정한 예배의 의

미를 놓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다”고 고백했다. 그의 나눔은 진정한 예배의 의미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 사랑에 힘입어 기쁨으로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다.

7월 6일(일)에는 J4U청년부에서 ‘The Way’ 집회에 참가한 현지교회 두 곳을 방문했다. 50~70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소규모 교회였는데, 다음세대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예

배드리고 있었다. 집회에서 만난 청년들에게 미리 준비해간 일대일제자양육 핸드북과 일본어판 <생명의 삶> 등 신앙 서적들을 전달하며 일본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했다.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를 통해 신앙 생활에서 ‘동역자’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신앙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을 때 더욱 풍성해지는 여정임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일본 교회가 겪는 신앙 고립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 교회도 직면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전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일본 교회의 환대와 기도를 받으며 이웃 나라의 사랑을 경험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사는지’, ‘최근 이웃과 동료, 친구, 가족을 위해 기도한 적 있는지’를 돌아봤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혐오와 비판이 만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닐까?



김세연 자매
(J4U청년부)



기도, 다음세대를 향한 소망의 불씨!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교사 및 학부모 750여 명 참석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가 지난 7월 11일(금)과 18일(금)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열렸다. ‘기도, 다음세대를 향한 소망의 불씨’를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집회에는 차세대 교사와 부모, 성도 등 750여 명(11일 서빙고 327명, 양재 388명, 18일 서빙고 356명, 양재 398명)이 참석했다.

1차 부흥집회(11일)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는 박종길 목사가 ‘요셉의 교훈’(창 39:1~2)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서병화 장로 대표기도, 정은찬 학생 간증 등이 이어졌다. 같은 날 양재온누리교회에서는 노희태 목사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신 6:4~9)를 주제로 설교하고, 박치완 장로 대표기도, 박보연 교사

간증 등을 했다.

2차 부흥집회(18일)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는 노희태 목사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신 6:4~9)를 주제로 설교하고, 이종우 장로 대표기도, 연명은 교사가 간증했다. 같은 날 양재온누리교회에서는 강부호 목사가 ‘다시 사명을 기억하다’(창 1:28)를 주제로 설교하고, 조병현 장로 대표기도, 계예린 학생 간증 등을 했다.

/ 홍하영 기자

입양체계 개편 설명회

제이흙(입양위탁가정공동체)에서 ‘입양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한다. 8월 17일(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아동권리보장원 한명에 본부장이 강의한다.

입양체계 개편 설명회에서는 입양과 위탁에 관심 있는 예비 입양(위탁) 가정에 입양제도 개편(25.07.19)에 따른 입양 절차, 법적 예비 양부모 자격 및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한다.

문의: 010-6579-0885

연애코칭스쿨 7기 참가자 모집

연애코칭스쿨 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모드라운지 신논현점에서 진행된다. 크리스천 미혼 싱글 남녀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8월 4일(월)부터 9월 7일(일)까지 행가래 네이버 카페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문의: 02-794-3110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가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9월 3일(수)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 심예은 기자

E스포츠, 문화 선교의 한 방법!

맞춤전도 스포츠위원회 ‘E스포츠 세미나’ 개최

전도사역본부 맞춤전도팀 스포츠위원회가 ‘E스포츠 세미나’를 지난 7월 21일(월)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개최했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 전도사역본부 리더십, 성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E스포츠 세미나는 강종도 장로 대표기도, 여성민 목사 설교, 김정훈 장로 인사 및 소개, 김형석 장로 주제 강의, 질의응답, 기도회(이신준

장로 인도),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석 장로는 ‘E스포츠 현황과 선교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장로는 “E스포츠는 다음세대를 향한 문화 선교의 한 방법”이라며 “게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시대적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로 준비하자”고 권면했다.

/ 홍하영 기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수원 ‘창조과학 특별세미나’ 185명 참석

수원온누리교회가 교회 창립 22주년을 기념하며 ‘창조과학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20일(일) 오후 2시 명지대학교 창조관에서 열렸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 참가자들은 성

경적 창조 세계관을 되새겼다. 수원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리더십, 성도, 차세대 185명이 참석했다. 강의를 이병수 교수(한국창조과학회 이사)가 ‘창조와 노아 홍수의 과학적 증거’를 주제로 했다.

/ 홍하영 기자

엘라이프 서빙고 토요일오전반 참가자 모집

8월 30일~10월 11일 매주 토 오전 10시 서빙고 두란노홀

엘라이프 서빙고 토요일오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 1층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8월 28일(목)까지 구글폼(QR참고) 또는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

는 9만 원. 엘라이프에서는 40일 동안 기쁨, 기도, 감사, 운동, 음식을 주제로 5가지 활동을 하면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문의: 02-3215-3532



〈생명의 삶〉
QT프리뷰
(Preview)

QR코드를 찍으면 7월 넷째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의 치유와 돌봄’

금요회복예배 8월 특별예배

회복사역본부 금요회복예배에서 8월 한 달 동안 ‘가족의 치유와 돌봄’을 주제로 특별예배를 드린다.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된다.

어려움을 겪는 가족의 상처를 보듬고, 가족의 의미와 역할을 기독교적으로 조명하며, 실제적인 돌봄 노하우를 전수한다. 가족의 치유와 돌봄에 관심이 있는 성도와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금요회복예배 8월 특별예배에서

는 8월 1일 박성덕 소장(연리지 가족부부연구소)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 8일 박성덕 소장 ‘정서적으로 건강한 회복’, 15일 성지현 교수(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암 환우와 가족 돌봄’, 22일 이현주 교수(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소) ‘상실로 인한 애도, 그리고 연결성’, 29일 남윤영 박사(국립정신건강센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정신질환자 가족의 역할)’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문의: 02-3215-3532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CGN ‘선교마블 기도탐험대2’ 시청자 이벤트

9월 3일까지 시청 인증사진 및 후기 이메일 제출

CGN 대표 키즈 콘텐츠 ‘선교마블 기도탐험대 시즌2’ 시청자 이벤트를 한다. 9월 3일(수)까지 ‘선교마블 기도탐험대 시즌2’를 시청하고 찍은 인증사진과 후기를 카카오톡 채널(풍당교회학교)이나 이메일(fondantmc@gmail.com)로 보내면 된다.

교회 및 단체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인증사진은 2장 이상, 교회에서 찍어 보내야 한다. 매주 3개 교회를 선정해서 교회당 ‘선교마블

한정판 보드게임’을 세 개씩 선물로 보내준다. 선정된 사진과 후기는 기독교 OTT ‘풍당’ 홍보 채널에 게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OTT ‘풍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교마블 기도탐험대’는 보드게임을 하면서 선교지를 알아가고, 선교 비전을 심어주는 어린이 선교 콘텐츠다. 매주 수요일 기독교 OTT ‘풍당’에 업로드 된다.

문의: 02-3275-9372

/ 홍하영 기자



콘솔라토르 싱어즈, 온누리복지재단에 후원금 전달

지난 7월 16일 콘솔라토르 싱어즈가 온누리복지재단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지난 7월 5일(토) 열린 제4회 찬양음악회의 수익금이다. 후원금은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7월 세례자

〈서빙고〉	유아	유성욱 민성원	박찬우 241008	입교
김소진 780412	박지율 240706		박종철 이우림	구채원 021104
김예성 100303	박세종 김 녀	〈양재〉	이로이 230702	이종명 040825
김예지 070206	서문수 박문희	유아	이정규 최유나	이찬희 021011
노하은 080411	서문수 박문희	고하연 240527		
박지인 720407	손은호 240528	고선우 권민정	〈대학청년〉	■허브
배현수 681129	손호영 성연은	김류이 250203	■하늘	윤지상 050804
봉윤이 741116	오주원 240707	김세웅 박아진	박서영 020809	입교
서문수 770531	오원석 정해윤	김아림 241003	최서현 050911	이정현 040727
윤지호 720522	유서진 231116	김동원 오세린		한예람 000902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천

7/19(토) 강남B 김은숙 성도 모친상 고 박경민
7/23(수) 서초B 김남실 권사 시모상 고 김춘자
7/23(수) 성북 하중숙 성도 모친상, 최창윤 성도
빙모상 고 김판순
7/23(수) 북대B 전인순 집사 부친상, 라유태 집사
빙부상 고 전형주
7/23(수) 양천 차승희 집사 모친상, 서경원 성도
빙모상 고 백문희
7/24(목) 관악사역 노혁준 성도 부친상 고 노승행
7/25(금) 여의도 문정리 집사 모친상 고 김귀련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현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심예은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회차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와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기간: 2025년 12월까지
모집: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청결 봉사
신청: VMS 신청, 우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청장년 세대(청년, 외국인) 합창단 모집
기간: 2025년 11월까지
모집: 세대 교류 및 소통을 희망하는 청장년 세대(청년, 외국인)
내용: 합창 연습, 세대 간 교류 및 소통
신청: 우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시립서울역역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협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현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현금온라인 안내
신청주연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입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의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결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녀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 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광고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초·중등)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1, 3주 주일연습 오후 1시 30분~3시)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김유미 010-3923-0416

서빙고온누리교회 계수실 봉사자 모집
내용: 서빙고온누리교회 주일예배 3, 4부 후 계수
모집: 각 1가정(부부)
자격: 안수집사 임직자
문의: 김형준 장로(010-4104-4911)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두플러스앱 콘텐츠 기획 및 운영 1명
형태: 계약직(1년 3개월), 주5일 근무
지역: 서울 서빙고동
모집: 8월 10일까지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게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는 '어린이 선교 콘텐츠'
시리아, 북한 등 선교지에 기도로 교회를 세워요!

선교마블2

기도탐험대



매주 수요일,
종당에서 만나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지구를 지키는
착척박사 '지킴이'



선교마블2
종당으로 시청하기

<보드게임으로 떠나는 선교지>

<선교사님에게 듣는 생생한 현장>

<별이, 지킴이와 함께하는 선교 여행>



"CGN은 성도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CGN 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온누리선교재단)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